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의 한약 및 건강기능식품의 인식 실태에 대한 연구

김미기 · 정지호 · 민들레 · 이해자 · 박은정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Abstract

Study to Examine the Awareness of the Parents, whose Children are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do, on Herbal Medication and Health Functional Food

Kim Mi Ki · Jung Ji Ho · Min Deul Le · Lee Hai ja · Park Eun Jung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t preferences between herbal medicine and health functional food, and analyze the reasons for the preferences to figure out the better way of promoting herbal medicine.

Methods

500 questionnaires has been handed out to the parents ha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province, and 331 questionnaires has been collected and evaluated for this study.

Results

Among the 331 responses, 58.4% were female, and 41.6% were male. The percentages of the subjects who consume health supplements and that of herbal medicines were 67.4% and 59.2% respectively. The preference rate for the health supplements was 57.6%, and for herbal medicines was 42.4%. The major reason of taking the health supplements was that they were convenient to consume(54%). The major reason for choosing herbal medicines was that people 'expect them to be more effective'(72.7%). However, the problem with Herbal medicine was their consumptions were inconvenient (39.8%), and their tastes was unfavorable. The most preferable form of herbal medication was pills(50.6%), followed by syrup(22.9%). Pertinent price for herbal medication, the participants were favorable to pay 30,000 within a week. For the question on when to start taking the herbal medication, 18 months after was the popular answers from the participants.

Conclusions

Among the 331 subjects, the percentage of consuming the health supplements (67.4%) was higher than that of consuming the Herbal Medicine (59.2%). Also the preference was higher than the Herbal Medicine. The reason why the participant preferred health supplements was that they were 'easy to take', The reason for subjects' great preference in herbal medicine was based on their conception that herbal medicines were highly effective. When taking herbal medicine, participants addressed inconvenience in consuming, and unfavorable taste as the biggest problems. Also they thought that pills would be most convenient form of herbal medicine to consume. For the proper price, they were willing to pay less than 30000won, lower than a market price, per a week for the herbal medicine. Most parents thought that proper age of taking herbal medicine is '18 month after the birth'. Taking these into account, different perspectives on herbal medicine is necessary at the very moment.

Key words : Herbal medicine, Health functional foo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 緒論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¹⁾, 국내 도입 이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 소득이 증대하고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구가 고령화되는 등 생활여건의 변화와 함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아울러 식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건강 관련식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량 식품 제조나 허위, 과장 광고 등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6차의 개정을 거듭하며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²⁾. 김³⁾의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복용률은 한약보다 높았으며, 김⁴⁾의 연구에서는 건강보조식품과 한약과의 차별 인식 조사 결과, 65.8%가 인삼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을 질병치료를 위한 약으로 오인하거나 ‘단시일’ 내에 의학학적인 효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과장된 광고나 홍보에 의해 남용되기도 한다⁵⁾. 이러한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의 선호도를 비교해 알아보고, 선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한약의 대중화를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여 그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對象 및 方法

1. 대상

2010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기도 ○○시에

소재한 한 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500부를 배포한 후 회수된 331명을 분석하였다.

2. 설문지 작성

설문지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과 한약간의 선호 순위, 각각의 선호 이유, 한약 복용시 문제점과 불편 사항, 선호 제형, 치료 한약의 적정 가격, 한약 복용 가능 나이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고, 설문지 작성은 학부모가 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분석 $\chi^2(p)$ 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研究結果

1. 일반 특징과 복용률 비교

총 331명 중 성별은 여자가 58.4%, 남자 41.6%였고, 자녀의 학년으로는 6학년은 없었고, 5학년이 25.5%, 4학년이 21.8%, 3학년이 23.9%, 2학년이 12.4%, 1학년이 16.4% 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체 대상자 중 건강기능식품 복용률(현재 복용 및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Uptake Ratio

		Number	%
Gender	Male	132	41.6
	Female	185	58.4
Grade	1st	54	16.4
	2nd	41	12.4
	3rd	79	23.9
	4th	84	21.8
	5th	84	25.5
	6th	0	0
Uptake	Health functional foods	223	67.4
	Herbal medicine	196	59.2
	Total		100.0

Table 2. The Preference Ratio and the Reasons for Choosing Health Functional Foods and Herbal Medicine

Health functional foods group	Reasons For choosing	Herbal medicine group
22(11.6%)	More effect	101(72.7%)
41(21.7%)	Less side effect	31(22.3%)
102(54.0%)	Easy to take	2(1.4%)
14(7.4%)	Low price	0 (0%)
10(5.3%)	etc.	5(3.6%)
189(57.6%)	total	139(42.4%)

Table 3. The Problem and Inconvenience of Herbal medicine

	Variables	Effect Number(%)
The problem of Herbal medicine	High price	77(23.4)
	Distrust of effect	29(8.8)
	A heavy metal or agrichemicals	79(24.0)
	Inconvenience to take	131(39.8)
	etc.	13(4.0)
	----- Total	331(100)
Inconvenience of taking Herbal medicine	Flavor and taste	201(61.1)
	Too much dosage	15(4.6)
	To warm up the medicine	51(15.5)
	Inconvenience of storage or taking	46(14.0)
	etc.	16(4.9)
	----- Total	331(100)

Table 4. The Preference Formula

Variables	Distribution(%)
Decoction	61(18.6)
Soluble granules	22(6.7)
Syrup	75(22.9)
Pills	166(50.6)
etc.	4(1.2)
Total	331(100)

복용 경험 포함)은 67.4%로 나타났고, 한약 복용률은 59.2%로 나타났다(Table 1).

2.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의 선호도 비교

자녀에게 건강기능식품과 한약 중에서 꼭 한 가지를 복용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가란 질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한 그룹은 57.6%, 한약을 선택한 그룹은 42.4%로 나타났다(Table 2).

3. 각각의 선호에 대한 이유 비교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한 그룹은 선택의 이유에 대하여, ‘복용하기 편리하다’가 가장 많은 54%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부작용이 더 적을 것 같아 안심 된다’가 21.7%로 많았다. 한약을 더 선호한 그룹은 그 이유에 대해 ‘효능이 더 뛰어날 것 같다’가 가장 많은 72.7%였으며, 그 다음은 ‘부작용이 더 적을 것 같아 안심 된다’가 22.3%를 차지했다(Table 2).

4. 자녀의 한약 복용 기피 이유와 복용 시 불편 사항

한약을 복용시킬 때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수가 ‘자녀가 먹기 불편해서 싫다’라고 응답(39.8%)하여 복용 시의 불편함을 이유로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중금속이나 농약이 걱정된다’(24%), ‘가격이 부담스럽다’(23.4%) 등이 있었다(Table 3).

복용시 어떠한 점이 가장 불편한지 묻는 질문에는 61.1%의 학부모가 ‘한약의 맛이나 냄새’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로 ‘한약을 데워서 복용해야 하는 점’, ‘보관이나 휴대의 어려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3).

5. 선호 제형

한약을 복용한다면 어떤 제형이 자녀가 먹기에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환제(알약처럼 작은 환 모양으로 만들어 물과 함께 삼키거나 청심환처럼 씹어먹는 형태)라는 응답이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시럽제(22.9%), 탕제(18.6%), 기타(1.2%)의 순이었다(Table 4).

Table 5. The Proper Price for Consumer

Price	Distribution(%)
Within 30,000\	159(48.9)
30,000\ - 50,000\	118(36.3)
50,000\ - 70,000\	25(7.7)
70,000\ - 100,000\	19(5.8)
More than 100,000\	4(1.2)
Total	331(100)

Table 6. Proper Age to Take Herbal Medicine

Age	Distribution(%)
One hundredth day after the birth	5(1.5)
12 months after the birth	66(20.2)
18 months after the birth	137(41.9)
etc.	119(36.4)
Total	327(100)

6. 치료 한약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보약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한약의 경우, 일주일당 적정한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3만원 이내가 48.9%, 3만원 이상 5만원 이내가 36.3%로 응답해 대부분을 차지했다(Table 5).

7. 한약 복용 가능 연령에 대한 인식

한약을 먹어도 되는 나이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18개월 이후부터'(41.9%)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의견이 36.4%로, 20세부터 다양한 나이들이 응답되었다(Table 6).

IV. 考察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의 유효성분에 의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의 효과 등이 증명되면서 식품의 기능성, 즉 식품의 생체조절기능이 주목받고 있다⁶⁾. 이러한 분위기는 생약을 사용하는 한약의 자연치유적 치료방법과 맥락을 같이하여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아에 대한 한약의 접근성은 성인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편이며, 반면에 간편하게 웰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 건강과 영양 간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주요 소비 품목으로 예측되고 있다⁷⁾. 최근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가칭) 시범운

영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국가적 지원이 실시되어¹⁾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력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소아를 둔 부모님들의 한약에 대한 인식이 건강기능식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한약이 소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녀에게 건기식과 한약 중에서 꼭 한 가지를 복용해야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한 그룹이 57.6%, 한약을 선택한 그룹이 42.4%로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⁸⁾의 연구에서 한약의 선호도가 61.5%, 건강기능식품이 38.5%였던 것, 김⁹⁾의 연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 과반수 이상(57.5%)이 한약이라고 대답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조사 지역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차이점과, 손⁸⁾의 연구는 본 조사보다 3년 전, 김⁹⁾의 연구는 1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으로 미루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선호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한약을 더 선호한 그룹은 그 이유에 대해 '효능이 더 뛰어날 것 같다'가 가장 많은 72.7%였으며, 그 다음은 '부작용이 더 적을 것 같아 안심 된다'가 22.3%를 차지했다. 김⁹⁾의 연구에서도 한약 선호군의 이유로 효능의 우위를 꼽아 한약의 전문성은 건강기능식품과 비교하여 가장 강한 장점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한 그룹은 선택의 이유에 대하여, '복용하기 편리하다'가 가장 많은 54%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부작용이 더 적을 것 같아 안심 된다'가 21.7%로 많았다. 이는 김⁹⁾의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을 모두 복용한 그룹 중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한 이유 중 '복용하기 편리하다'(41.6%)가 가장 많

아 역시 복용 상 편의성이 건강기능식품이 가진 큰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하여, 한약을 복용시킬 때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수가 '자녀가 먹기 불편해서 싫다'라고 응답(39.8%)하였고, 김⁹⁾의 연구에서도 한약 비복용자군의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먹기에 불편해서 싫다'(19.2%)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소비자와의 접근성에 건강기능식품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복용상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용상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복용시 어떠한 점이 가장 불편한지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학부모가 '한약의 맛이나 냄새'라고 응답하여 기존 탕약 제제의 맛과 냄새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종래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환 등의 예시된 제품형태(제형)만으로 사실상 인정되어 왔으나 2008년 3월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러한 제형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자율화되었고²⁾, 이로써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진 접근성 높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한약 복용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선호 제형에 관한 질문에, 환제(알약처럼 작은 환 모양으로 만들어 물과 함께 삼키거나 청심환처럼 씹어먹는 형태)가 50.6%로 가장 많았다. 탕제를 통한 치료방법은 한방치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써 한방 약재들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치, 배합하여 일정량의 물과 더불어서 끓이는 과정을 거친 후 짜서 그 약물을 복용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미(甘味)만을 선호하는 소아의 미각적 특징으로 인해 심한 거부감을 야기시키므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아 탕제는 흑설탕이나 꿀과 같은 감미제를 넣어 고미를 완화하여 복용시키는 실정이다¹⁰⁾. 김¹¹⁾의 연구에서, 선호하는 한약제형, 가장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약제형,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한약제형 모두 탕제(첩약)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소아와 제형 선호의 차이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맛과 향에 취약한 소아에게는 환제처럼 먹기 간편한 제형이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방의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치료효과가 없다'보다 '비싼 가격'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¹¹⁾. 배¹²⁾의 연구에서는 한방 진료의 경우 진료비가 비싸다는 의견이

70.3%로 나왔으며 이¹³⁾의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치료비 부담정도에 대한 질문결과 '비싸다'가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치료 목적의 한약으로 일주일간 복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3만원 이내(48.9%)가 가장 많아 시중 한약 가격 대비 낮은 가격을 선호했다.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한약의 비용이 높아 이용 상 제약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약을 먹어도 되는 나이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18개월 이후부터'(41.9%)라고 응답하여 유아기의 한약 복용에 대해 막연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¹⁴⁾의 연구에서는 초회 한약 복용 평균 연령은 55개월이 가장 많았다. <동의보감>에서 소아의 초생병에 여러 처방들을 응용하는 것이 나와 있으며¹⁵⁾, 양유법¹⁶⁾으로 대신해야 하는 3개월 미만의 유아 이외에 특별한 문제 없이 한약 복용이 가능하다. 초회 한약 복용 연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한약 복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소아를 대상으로 한 한약 보급 범위를 넓혀야 하겠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 소재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표본 수가 더 많고 지역적 한계가 적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소아의 한약 복용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V. 結論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건강기능식품 및 한약의 인식 실태를 알아보고자 경기도 ○○시 소재 일부 초등학교의 학부모 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총 331명 중 건강기능식품 선호율(57.6%)이 한약 선호율(42.4%)보다 높았다.
2.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한 그룹은 복용하기 편리해서(54%)가 가장 큰 이유였고, 한약을 선호한 그룹은 효능이 더 뛰어날 것 같아서(72.7%)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다.
3. 한약 복용시 꼽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녀가 먹기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9.8%), 복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한약의 맛이나 냄새라고 응답(61.1%)하여 한약 복용시 편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약 복용시 선호하는 제형은 보관과 휴대, 복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제(알약처럼 작은 환 모양으로 만들어 물과 함께 삼키거나 청심환처럼 씹어먹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50.6%), 그 다음 시럽제(22.9%), 탕제(1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5. 치료 한약의 적정 가격에 대해, 일주일 당 3만원 이내(48.9%), 3만원 이상 5만원 이내(36.3%)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해 시중 한약 가격대보다 낮은 가격을 선호했다.
6. 한약을 먹어도 되는 나이는 '18개월 이후부터'(41.9%)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아, 영유아의 한약 복용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에 대한 연구. 2009;23(3):143-54.

- 10) 김기봉, 김장현. 소아 임상상 한약 제형에 관한 연구. 1999;13(2):1-14.
- 11) 김용호, 김세현, 장혜정, 박재경, 정미영, 박유선. 한약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인의 한약제형 선호도 조사. 대한본초학회지. 2009;24(4):17-23.
- 12) 배주환, 남철현, 위광복. 한방의료개선에 대한 지역 사회주민의 의식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997;1:126-36.
- 13) 이선동, 박경식. 최근 일부 한국인의 한의사, 한방의료 기관 및 한의학 관련인식, 태도 및 의료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예방학회지. 1997;1:27-36.
- 14) 안영준. 초등학생에서 한약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과학회. 2007;50(4):381-5.
- 15) 허준. 동의보감. 경남:동의보감 출판사. 2005:1836.
- 16) 조정준. 급유방. 서울:여강출판사. 1993:34.

VI. 參考文獻

-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hfood.kfda.go.kr>
- 2) 조태제.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법과 정책연구. 2009;9(1):9-35.
- 3) 김미기, 정지호, 신권성, 이동엽, 이해자, 박은정.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의 건강기능식품 및 한약 복용 실태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0;24(2):40-8.
- 4) 김윤선. 강원지역 중년 남녀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실태와 식습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 5) 김미라, 임미경. 부산·경남 지역소비자의 건강식품 섭취자와 비섭취자의 특성 비교 및 섭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2007;17(6):798-807.
- 6) 이정윤, 채수규, 김규동.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및 구매 의도 연구. 2011;18(1):103-10.
- 7) 김선호.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및 섭취 요인 연구. 2010;25(2):150-9.
- 8) 손정모. 피부질환 보유 어린이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한약 복용 실태조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2006.
- 9) 김미기, 정지호, 임정훈, 안재선, 박진수, 안민섭, 이해자, 박은정. 초등학생의 건강기능식품 및 한약 복용

6. 자녀분이 '보약'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할 경우, 일주일분에 적정한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3만원 이내

② 3~5만원 이내

③ 5~7만원 이내

④ 7~10만원 이내

⑤ 10만원 이상

7. 한약을 먹어도 되는 나이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백일 이후부터

② 12개월 이후부터

③ 18개월 이후부터

④ 기타 ()